

두산중공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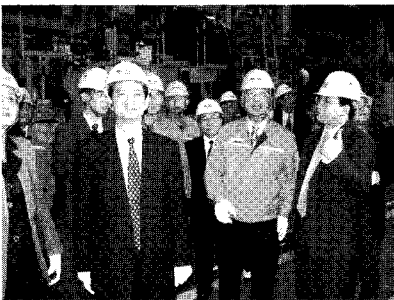
베트남 부총리 두산중공업 창원공장 방문

두산중공업은 한·베트남 원전 수교 10주년을 맞아 방한 중인 응웬 턴 중(Nguyen Tan Dung) 베트남 수석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 무역부 차관 등 베트남측 대표단 70여명이 지난 8월 31일 창원 두산중공업을 방문했다.

울산 현대자동차 방문에 이어 이날 오후 6시경 두산중공업에 온 베트남대표단은 김상갑 두산중공업 사장 등 임직원과 함께 사내 정성관에서 열린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두산중공업은 베트남 대표단측에 국내의 발전소 및 플랜트 건설 실적을 소개하고, 베트남 원전건설과 산업 플랜트 공사의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베트남 대표단은 두산중공업 창원공장의 생산설비와 기술 수준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베트남 기술자 산업



연수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9월 1일 오전에는 두산중공업 본관 상황실에서 회사 홍보영화를 관람하고 터빈발전기공장과 원자력공장 등 생산현장을 시찰했다.

응웬 턴 중 베트남 수석 부총리는 올해 53세로 공산당경제위원회 의장과 국회의원, 경제산업담당 부총리를 역임했으며,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지난 '97년 베트남 하이퐁시에 발전 및 산업 플랜트설비 제작회사인 한비코(HANVICO)를 현지 업체와 합작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96년 11월에는 도 무어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두산중공업을 방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두산중공업이 체계적 전략적 인력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영혁신과 개인의 자아실현에 크게 기여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한국인재경영대상에서 최우수기업으로 뽑혔다.

두산중공업은 국내 1,500여개 대규모 상장기업 가운데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한국인재경영대상 제조업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9월 18일 밝혔다.

이 상은 한국능률협회가 인력개발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인력개발 성과, 인력개발부문에서의 정보기술 활용도, 교육 담당인력의 육성 등

을 평가해 업종별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기업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연공서열식 인사체계에서 탈피해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선진인사제도의 도입 ▲직급별 핵심역량 모델의 개발 ▲프로세스 개선에 의한 과정개발 모델 구축 ▲사이버 교육 시스템 개발 및 시행 ▲합천연수원 및 기술교육센터 개원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왔다.

두산중공업 정석균 전무(관리본부장)는 “회사가 민영화 이후 인재 중시의 기업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인사제도의 개선과 교육훈련의 개발에 중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한국인재경영대상은 국내 상장기업 가운데 경영혁신과 인재개발 부문 발전에 기여한 기업 중 각 부문별 최우수 기업에 매년 수여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 2002년도 경영평가 및 상반기 경영분석회의 개최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는 2002년 9월 3일 본사 7층 회의실에서 사장, 감사, 관리·기술본부장을 비롯하여 본사의 처장 및 팀장과 사업소의 사업소장 및 평가담당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경영평가 및 상반기 경영분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2002년 경영평가운영 계획 발표에 이어 상반기 종합경영분석, 경영혁신 추진현황 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윤동용 기획조정처장이 2002년도 경영목표 및 세부 항목별 설정내역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항목별 특히 EBITDA와 비계량항목 추진시 당부사항을 전한 다음, 2002년도 내부 경영실적 평가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어 상반기 경영분석 보고가 계속되었는데, 당기순이익은 당초 계획인 689억원을 97%나 초과한 1357억원을 시현하였고, 발전운영 부문에서는 노조파업에 따른 O/H 준공 지연으로 인한 발전량 감소 등으로 열효율과 이용률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올해에는 대부분의 지표가 계획대비 소폭 향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경호 경영정보팀장은 발표하였다.

그리고 중부발전에서 전사적 역점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경영혁신 운동의 추진현황 및 중간점검 기회를 가졌다. 정창길 경영기획팀장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혁신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영철 사장은 이날 강평을 통해 “이번의 종합경영분석회의는 간부를 포함한 직원들이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하고, “구조개편으로 시작된 발전회사간 경쟁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향후 5년 혹은 10년 후의 우리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끊임없이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과 전진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2001년도 내부평가·노사화합 증진·서울화력 5호기 장기 무고장운전 달성 유공직원 11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있었다.

현대중공업(주)

4천 8백TEU급 컨선 命名式 그리스 코스타마레社, 「짐 뉴욕」과 「짐 상하이」

現代重工業은 지난 9월 5일 오전 회사 내 안벽에서 그리스 코스타마레(COSTAMARE)社로부터 수주한 4800TEU급 컨테이너선 두 척에 대한 명명식을 가졌다.

이날 명명식은 現代重工業 송재병 조선사업본부장(부사장)과 코스타마레사 코스타스 콘스탄타코폴로스(Mr.

Kostas Constantakopoulos) 부사장을 비롯해 관련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 선박은 코스타마레社로부터 2000년 8월에 수주한 선박으로 길이 284, 폭 32.2, 깊이 18.4미터이며, 現代重工業이 자체 제작한 5만 5890마력급 엔진을 탑재하고 24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이들 선박은 선주측 감리사인 오퍼브라더스(OFFER-BROTHERS)社 벤 슈뮤엘(Mr. Ben-Shmuel) 수석 감독관의 부인인 주디스 벤 슈뮤엘(Mrs. Judith Ben-Shmuel) 여사와 오퍼브라더스 계열사인 짐(ZIM)社의 왕 팬 민(Ms. Wang Fan Min) 홍보담당 매니저에 의해 「짐 뉴욕(ZIM NEW YORK)」과 「짐 상하이(ZIM SHANGHAI)」로 각각 명명되었다.

한편, 現代重工業은 지난번 수해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사상 최악의 태풍 피해를 입은 장릉, 김천, 영동, 김해지역의 피해 복구작업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들 지역에 도로 복구작업에 용이한 굴삭기를 비롯해 도저, 휠로더 등 14대의 건설장비를 운전기사와 함께 긴급 무상 지원하기로 하고 9월 4일 현지에 투입했다.

現代重工業은 밤낮없는 복구지원을 위해 운전기사도 장비 한대당 2명씩 파견하는 등 모두 30명의 인원을

파견해 최대한 복구작업을 도왔다.

이번 태풍에 가장 피해가 큰 강릉지역에는 종류별로 5대의 장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세 곳은 각각 3대씩 지원해 신속한 복구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미 지난번 수해 때도 물에 잠긴 건설장비를 무상점검해주는 등 수해 돕기에 나선적이 있는 現代重工業은 이번 태풍으로 수십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전전력연구원

국내 최초 의견해석 전담기관 지정

한 전 전력연구원이 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및 '의견 및 해석을 전담하는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전력연구원은 9월 3일 최근 KOLAS 사무국 인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 국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최초로 '의견 및 해석을 전담하는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해당고객에 국한됐던 시험성적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해석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 동안 전력연구원 품질관리팀은 '전력연구원 품질인증 추진방안', '품질인증 조직 운영방안' 등을

수립해 품질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해왔다.

또 발전연구실 발전기계그룹, 수화학환경그룹, 원자력연구실 구조부지그룹 등은 시험인력의 구성 교육, 시험장비의 교정 식별작업, 시험환경 구축 시험절차서 작성 등을 통해 시험업무의 신뢰성을 높여왔다.

전력연구원은 오는 2003년 온도 압력 전기분야 등에 대한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시험과 교정분야에서 국제공인을 획득, 최고의 전력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제20회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

한 국전기공사협회는 오는 10월 8~9일 양일간 전기공사 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시공기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 특설경기장에서 '제20회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기공사 기능경기대회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국 19개 지회에서 총 171명의 선수가 참가, ▲외선 가공선 부문 ▲외선 지중선 부문 ▲동력 배선 부문 ▲옥내배선 부문 ▲공무 부문(시범종목) 등 5개 종목에서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에는 특히 공무 부문을 시범종목으로 채택해 전기공사 기능인력뿐만 아니라 공무분야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10월 9일에는 파페카(아시아·태평양지역 전기공사협회 연합회) 참가단이 협회 기능경기장을 방문, 참가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참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회 전종목의 1·2·3위 입장자 전원에게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전기공사기능사 자격'을 부여한다.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 5·6호기 준공

50만kW급 석탄화력 2기
4년 7개월만에 완공

한 국서부발전(주)의 태안화력 5·6호기가 준공됐다.

한국서부발전(주)은 9월 4일 충남 태안군 소재 태안화력발전소 현지에서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문석호 국회의원, 강동석 한전 사장 등 주요 인사와 건설참여업체 대표,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화력 5·6호기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태안화력 5·6호기는 50만kW급 석탄화력 2기로 지난 '97년 착공, 총 공사비 9624억원을 투입해 4년 7개월여 만에 완공했다.

태안화력 5·6호기의 종합설계는 한국전력기술(주), 보일러 공급은 두산중공업(주), 터빈 및 발전기 공급은 현대중공업(주), 시공은 현대건설(주)·LG건설(주)·대아건설(주)이 각각 맡았다.

특히 태안화력 5·6호기는 최신형 초임계압 관류형 보일러를 채택함으로써 열효율이 높고 전력계통 부하에 대한 출력 증감이 용이할 뿐 아니라 발전기기 운전조작의 완전 자동화 등 최첨단 제어기능을 완비한 발전소다.

태안화력 관계자는 “태안화력 5·6호기 건설사업은 발전설비 제작 일원화 조치 이후 최초로 경쟁 계약된 사업으로, 건설기간 중 IMF와 발전노조 파업이라는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도했다”며 “그 동안 축적된 건설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관계자 모두가 온 힘을 기울인 결과, 당초 목표보다 4개월여 앞당겨 상업운전을 개시함으로써 652억원의 추가수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태안화력은 6기 발전설비에 모두 최신 배연탈황설비와 석탄분진비산 방지를 위한 연속식 석탄하역기, 최첨단 폐수처리설비 등을 갖추었다. 이로 인해 화력발전소 중 최초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과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을 획득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국환 산자부 장관은 “발전소를 적기에 건설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잘 운영하는 것

도 매우 중요한 만큼 효율적인 설비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주)은 9월 1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최한 「2002 아이디어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창사 이후 끊임없는 지식경영 및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전기가스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본 대회준비는 평택화력 비전개발팀이 주도하였는데, 예상 밖의 “경영대상”이라는 큰 성과를 얻음으로써 회사의 이미지를 한 단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금번 ‘아이디어 경영대회’는 기업경쟁력 확보와 자기개발의 중요한 실천 수단인 제안, 소집단 활동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전직원의 자발적인 경영개선활동 참여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서부발전을 비롯해 KT, 한국가스공사, 제일모직, 웅진코웨이개발, 유한김벌리 등의 기업들이 각 부문별 대상을 수상하였다.

한전원자력연료(주)

KOSHA 2000 프로그램 인증 획득

원자력연료 제조·설계 및 수리전문회사인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는 지난 9월 13일 한국산업안전공

단으로부터 안전보건 경영체제인 KOSHA 2000 프로그램 인증서를 획득하였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체계적인 재해예방활동 추진이 가능해져, 산업재해로 인한 생명과 재산 손실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1993년부터 무재해 운동을 실시하여 금년 10월 무재해 7배 목표를 달성할 예정인 이 회사는 김덕지 사장이 SEE(Safety, Environment, Economy)를 경영철학으로 삼아 원자력연료의 안전성과 환경보존, 경제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1997년 ISO 9001 인증을 받은 이래 2001년 환경경영인증 시스템인 ISO 14001 인증, 2년 연속 국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금번 KOSHA 2000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안전, 품질, 환경경영면에서 명실상부하게 세계 일류회사로서의 기틀을 구축하게 되었다.

KOSHA 2000 프로그램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자율안전관리기법을 참조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적용하고 있는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체제 등을 평가·인증해주는 제도이다.